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

안 효 자¹⁾ · 정 복 례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인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 복합적인 과정이나(이형득, 1983),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겪게 되는 대인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이순희, 정승은, 2004)되고 있다.

특히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관련전문가 등과 대인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한 대인관계는 간호사에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대인관계 능력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중 간호학생에게 길러 주어야 할 중요한 간호능력 중의 하나라 하겠다.

간호학생의 대인관계에 대한 조사를 보면, 이순희와 정승은(2004)은 간호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성은 높은 반면 개방성이 낮아 자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기개방을 통한 인간관계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김현미(2002)는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동료의 지지와 수용, 자기노출, 공감방법 학습 등을 통한 대인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간호학생의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영래와 원호택(1997)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입시경쟁으로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사교적인 모임에서 조차 대인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의 경우에도 중도이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인불안은 대인관계와 학업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알코올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김남재, 2000; Ham & Hope, 2006) 대인불안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대인불안이 높은 집단은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현실적 사회상, 이상적 사회상 등 4가지 유형의 자기개념이 비 대인불안 집단보다도 낮아(김남재, 2000), 대인불안이 자기개념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대인불안에 대하여 김혁근(1992)은 인지적, 정의적 및 행동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인지적 차원은 대인관계를 하는 동안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 사회적 수행에 대한 과소평가, 불안에 대한 과장적 해석,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정의적 차원에서는 부정적이거나 낮은 자아존중감, 지나친 자아의식 등의 심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행동적 차원은 비주장적행동, 행동 목표의 불충분성, 사회적 대화 및 기술의 부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경우 류승희와 안연경(2005)은 자아존중감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을 낮아짐을 보고하였고, 이순희와 정승은(2004)도 대인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과도하게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주요어 : 간호학생, 자아존중감, 대인불안

1) 서대구 대동병원 간호사, 대구산업정보대학 간호과 겸임교수(교신저자 E-mail: callm68@hanmail.net)

2)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가지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며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이게 되어 대인관계의 부족을 보이게 된다고 보고하여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을 조사하여 제시함으로써 간호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학생의 대인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을 파악한다.

용어의 정리

●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의 평가적인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도구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자아존중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대인불안

대인불안은 실제 혹은 가상의 상황에서 대인적 평가를 예견함으로써 생기는 인지적, 정서적 경험의 총체(Schlenker & Leary, 1982)이며, 본 연구에서는 Leary(1983)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대인관계 불안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 광역시와 일 도 소재의 3개 간호대학

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으로 설문지에 응답이 미비한 21명을 제외한 총 433명이다.

연구도구

●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전병제(1974)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의 총 10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순희와 정승은(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8$,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 대인관계 불안

Leary(1983)가 개발한 대인관계 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이하 IAS)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1점, ‘완벽하게 나타 낸다’ 5점의 5점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남재(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2005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1차로 1개 대학에서, 2006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2차로 2개 대학에서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자가 기록 후 회수하였으며 전체 83%가 회수되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5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자아존중감, 대인불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 · 최소값을 구하였다.
-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대인불안 정도와의 관계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학생은 1학년 50.1%와 2학년 49.9%였으며, 여학생이 94.2%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20세 이하가 48.5%와 21세에서 29세 사이가 49.2%이었다. 진학형태는 수능 후 바로 입학이 81.3%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34.6%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직이 잘된다는 이유가 40.6%, 본인의 사가 34.2% 그리고 부모의 권유가 21.0%로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N	%
Grade	Freshman	217	50.1
	Sophomore	216	49.9
Gender	Male	25	5.8
	Female	408	94.2
Age	≥20	210	48.5
	21-29	213	49.2
	30≤	10	2.3
Admission types	General	352	81.3
	Social experience	34	7.9
	Special	47	10.9
Religion	Buddhism	93	21.5
	Christian	83	19.2
	Catholic	107	24.7
	None	150	34.6
Majoring motives	For career's sake	176	40.6
	Parents' recommendation	91	21.0
	Of one's own motive	148	34.2
	Others	18	11.2

<Table 4>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Self-esteem			Social anxiety				
		mean	SD	F/t	p	mean	SD	F/t	p
Grade	Freshman	27.56	4.880	-4.715	.000	39.99	7.577	3.046	.003
	Sophomore	29.74	4.712			37.45	7.344		
Gender	Male	30.28	4.844	1.716	.087	35.37	6.831	-1.774	.077
	Female	28.55	4.906			38.57	7.537		
Age	≥20	27.85	4.997	5.649	.004	39.05	4.797	.941	.391
	21-29	29.44	4.792			37.96	7.303		
	30≤	28.60	2.875			37.25	3.495		
Admission types	General	28.69	4.878	.960	.384	38.80	7.586	4.447	.012
	Social experience	29.29	5.220			34.53	8.025		
	Special	27.83	4.962			38.35	5.206		
Religion	Buddhism	28.60	4.852	2.164	.092	37.66	6.461	5.049	.002
	Christian	29.33	4.862			35.73	7.027		
	Catholic	29.21	4.801			38.78	8.172		
	None	27.90	5.000			40.20	7.483		
Majoring motives	For career's sake	28.23	4.894	.739	.529	39.01	7.396	.604	.613
	Parents' recom.	28.97	5.030			37.79	7.207		
	Of one's own	28.93	4.872			37.93	7.738		
	Others	29.00	4.385			38.55	6.948		

<Table 1>.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 정도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8.65±4.913점이고, 대인불안은 평균 38.38±7.5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elf-esteem & social anxiety

	Mean	S.D.	Min	Max
Self-esteem	28.65	4.913	12.00	40.00
Social anxiety	38.38	7.52	14.00	66.00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의 상관관계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부적관계로 나타났다($r=-.286$, $p=.000$)<Table 3>.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Self-esteem
Social anxiety	-.286** ($p<.00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년간($t=-4.715$, $p=.000$)과 연령($F=5.649$, $p=.004$)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학생의 대인불안은 학년($t=3.046$,

$p=.003$), 진학상태 ($F=4.447$, $p=.012$) 및 종교($F=5.049$, $p=.002$)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실제 혹은 가상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경험의 총체인 대인불안(Schlenker & Leary, 1982)의 관리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서 극복하여야 할 주요 현상이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가 28.65점으로 나타난 것은 이순희와 정승은(2004)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평균점수가 28.29점으로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인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도구의 점수 범위가 10점에서 40점까지라 할 때 28.65는 중간정도임을 알 수 있어 앞으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육적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대인불안의 평균점수는 38.38점으로, 이는 Leary와 Kowalski(1993)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점수가 38.60이었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로 우리나라 간호대학생과 미국의 대학생이 비슷한 대인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점수범위가 15점에서 7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생의 대인불안정도가 중간 정도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두 변수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r=-.286$, $p=.000$)은 류승희와 안연경(2005) 및 이순희와 정승은(2004)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대인불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는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부정적인 자기태도로 타인에 대한 의식과 의존심이 많아 타인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여 대인불안이 높다는 Scheier(1980)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대인불안이 높은 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여줌으로 대인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학년($t=-4.715$, $p=.000$)과 연령($F=5.649$, $p=.004$)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을 띄는 것은 이순희와 정승은(2004)의 보고에서 1학년보다는 2학년이 전공 교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는 것이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으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간호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간호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불안이 학년($t=$

3.046 , $p=.003$), 진학형태 ($F=4.447$, $p=.012$) 및 종교($F=5.049$, $p=.002$)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학년 보다는 2학년이, 기타보다는 불교를 믿고 있는 집단에서,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입학한 간호학생에서 대인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은 대인불안이 학년이 올라 갈수록, 종교가 있는 대상자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을 쌓은 학생에서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다른 비교연구가 없어 앞으로 더 연구해 볼만한 과제라 하겠다.

이상에서 간호학생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간호사로서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 할 때, 간호학생의 대인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생의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 지역 소재한 3개 간호대학의 433명의 간호학생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2월 7일부터 2006년 6월 9일까지 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1.5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8.65 ± 4.913 점이고, 대인불안은 평균 38.38 ± 7.52 점으로 나타났다.
-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 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286$,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간호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년($t=-4.715$, $p=.000$)과 연령($F=5.649$, $p=.004$)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고, 대인불안은 학년($t=3.046$, $p=.003$), 진학형태($F=4.447$, $p=.012$) 및 종교($F=5.049$, $p=.002$)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대인불안은 낮으며,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높지 않았으며, 대인불안도 낮지 않아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간호교육과정에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대인불안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남재 (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 14, 73-81.
- 김남재 (2000).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모형관찰. *사회과학연구*, 6, 25-45.
- 김순례, 이종은 (2005).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98-106.
- 김혁근 (1992).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전남.
- 김현미 (2002).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1(5), 518-527.
- 류승희, 안연경 (2005). 유아의 대인불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0(3), 235-249.
- 이순희, 정승은 (2004). 간호대학 학생의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133-151.
- 이형득 (1983).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 출판부.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 11, 107-130.
- 조영래, 원호택 (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97-434.
- Ham, L. S., & Hope, D. A. (2006). Incorporating social anxiety into a model of college problem drinking: replication and extension. *Psychol Addict Behav*, 20(3), 348-355.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 Pers Assess*, 47, 66-75.
- Leary, M. R., & Kowalski, R. M. (1993): The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Construct and criterion related validity. *J Pers Assess*, 61, 136-14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ier, M. F.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on of personal beliefs. *J Pers Soc Psychol*, 39, 514-521.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 Bulle*, 92, 641-669.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

An, Hyo Ja¹⁾ · Chung, Bok Yae²⁾

1) Nurse, SeoDaegu Daedong Hospital; Adjunct Professor, Daegu Polytechnic College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to provide the data for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 **Method:** The subjects of study were the 433 nursing students of the junior colleges around a city and a province,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 7 to Jun. 9, 2006. The instrument for the study was questionnaire consist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by Leary, and Rosenberg's self-esteem scale by Rosenberg. **Resul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The mean scores of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were respectively 28.65 and 38.38.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was shown th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r=-.286, p=.000$).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how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des and ages in self-esteem. There were show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des, types of next stage of education, and religions in social anxiet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attributed to improve the inter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because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are essential in building and maintaining the desirable personal relations.

Key words : Nursing student, Self-esteem, Anxie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An, Hyo Ja

Nurse, SeoDaegu Daedong Hospital

278-7 Kugjeondong, Dalseogu, Daegu 704-932, Korea

Tel: 82-53-662-1067 Fax: 82-53-662-1000 E-mail: callm68@hanmail.net.